

장흥126타워, ‘평화·통일 염원’ 콘텐츠로 재탄생

1년3개월간 리모델링 거쳐
통일 기원 상징공간 새단장
1층 한강 작가 등 아카이브
“정남진서 새로운 역사 시작”

장흥 정남진 전망대가 재단장을 마치고 ‘장흥126타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지역민과 관광객들을 맞이한다.

20일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126타워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약 1년3개월간 리모델링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재탄생했다.

장흥126타워는 동경 126도선 위 특별한 좌표 위에 서있다. 서울 광화문을 기준으로 정남쪽에 위치한 상징적 공간으로 의미를 갖는다.

동경 126도선상에 자리잡아 중강진과 하얼빈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이곳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따뜻한 봄이 찾아오는 곳으로, 통일이 시작되는 희망의 좌표로도 알려져 있다.

숫자 126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 1은 ‘하나의 민족’, 2는 ‘2개의 나라’, 6은 ‘소통·화해·교류·협력·평화·기회’ 등 6개의 통일 가치를 상징하고 있다.



장흥 정남진 전망대가 재단장을 마치고 ‘장흥126타워’로 재탄생했다.

장흥126타워는 총10층으로 구성되며, 동선은 10층 전망대에서 시작해 계단을 통해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다.

1층에 자리잡은 ‘126라운지’는 영상관, 문학아카이브, 홍보그래픽을, 10층 ‘126타워 전망대’는 XR망원경과 파노라마 사인 그래픽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또 8층 ‘소통의 시간’ 공간은 판문점 포토존, 통일메시지 월, 남북분단 역사영상 등을, 7층 ‘교류, 통일기차의 꿈’ 공간은 통일기차여행 체험을 할 수 있다.

6층 ‘하나된 마음, 우리의 협력’ 공간에서는 통일 희망콘서트, 5층 ‘통일, 더 큰 기회 공간’에서는 통일 지수 키오스크, 통일 인포그래픽 등이 마련됐다.

4층 ‘평화의 날’ 공간에는 빛 오브제 작



장흥126타워 1층에 마련된 한강 작가 등 장흥 출신 문학인들의 작품과 작가를 소개하는 아카이브 공간.

가의 작품이 전시됐으며 3층 ‘화해의 바람’ 공간은 인터랙티브 체험 영상관으로 채워졌다.

특히 1층 라운지에는 장흥에 뿌리를 둔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와 장흥 출신 문학인들의 작품과 작가를 소개하는 아카이브도 마련됐다.

계단 공간에는 ‘통일 바람이 부는 정남진’이라는 주제로 바람개비가 설치돼 방

문객들에게 통일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126타워가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공간으로서 지역민과 방문객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통일 염원을 담아 정남진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고흥우주선 철도건설’ 토론회 5월23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고흥군은 오는 5월23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년 한국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특별 세션에서 ‘고흥우주선(별교-고흥-도양) 철도건설’ 타당성 및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김재문 (사)한국철도학회 회장과 최유진 춘계학술대회 준비 위원장이 주도하며, 한국철도의 발전을 위한 우수한 학술논문 발표, 다양한 주제의 특별 세션, 신기술 및 신제품 전시, 환영 만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고흥군은 대중교통포럼 주관으로 국내 철도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초청해 특별 세션으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시곤 교수의 발표를 시작으로 한국교통연구원 이호 박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준 박사 등이 참여해 ‘고흥우주선 철도건설’의 타당성 및 발전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다.

고흥군은 철도건설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 및 전남도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철도망이 구축되면 제주도와 내륙을 연결하는 물류 전용 노선으로서 지역발전은 물론, 우주·관광 산업 활성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번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우리 군 철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발전 전략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흥=심정우 기자

보성군, 올해 첫 ‘웅치 올벼쌀’ 모내기 시작

보성군은 지난 17일 웅치면 대산리 박순선 농가에서 2025년산 웅치 올벼쌀 생산을 위한 첫 모내기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내달 초까지 보성군 약 120여 농가가 총 130ha 규모로 웅치 올벼쌀을 재배할 예정이며, 오는 8월 중순 수확에 들어간다.

‘웅치 올벼쌀’은 일반 벼보다 약 보름 가량 이른 4월 중순 모내기를 시작하고 완숙 이전의 찰벼만을 엄선해 수확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확한 쌀은 가마솥 증기로 찐 후 햇볕에 자연 건조하는 전통 도정 방식이 더해져 쌀 고유의 풍미와 영양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웅치 올벼쌀’은 쌀 소비를 넘어, 누룽지, 과자, 선식 등 다양한 가공식품으로도 생산되며, 현대인들의 식생활에 맞춘 고품질 웰빙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향암 효과와 다이어트 효능이 뛰어난 기능성 쌀로 입소문을 타며 명절 선물 및



지난 17일 보성군 웅치면 대산리 박순선 농가에서 2025년산 웅치 올벼쌀 생산을 위한 첫 모내기를 시작했다.

건강 간식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웅치 올벼쌀’은 이러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2010년 농산물 지리적 표시 등록 제71호로 등재됐으며 현재 전국 올벼쌀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대

표적인 지역 특화 작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보성 웅치올벼쌀 및 관련 제품은 보성군 온라인 직거래 장터 보성몰(<https://boseongmall.c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보성=양종수 기자

광양제철소-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안전 정기교류회

개선사례 공유 등 ‘안전 항만’ 다짐

광양제철소는 지난 17일과 18일까지 해양수산청, 광양제철소 원료·제품부두 관계자들과 함께 “2025년 상반기 합동 항만안전 정기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주최하고 광양제철소가 주관해 진행됐으며, 광양제철소 안전방재그룹·생산기술부·제선부와 여수항·동해항·평택항 등 전국 7개 항만의 점검관 및 광양제철소 원료·제품부두 하역 업체 관계자 등 약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정기교류회는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광양제철소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및 유관기관들과 함께 안전한 항만 조성에 상호협력을 다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2022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항만 안전관리에 대해 항만·하역 사업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가운데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안전관리활동 사례가 논의됐다.

먼저 지난 17일에는 광양제철소제품부두에 실제 도입된 개선 사례들을 소개, 다양한 우수 사례가 논의되면서 향후 항만 점검관제도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어 18일에는 광양제철소와 여수지방

해양수산청이 함께 광양제철소 부두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부두 안전설비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시설물 관리 상태와 안전관리 현황 등을 평가했으며, 실제 현장에 적용된 우수 개선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박병준 항만안전감독관은 “항만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 작업장 운영과 항만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광양제철소 생산기술부 정대현 부장은 “본 교류회를 통해 안전 마인드 형성을 재확인하는 등 우리 광양제철소도 안전에 최우선해 모든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 순천시, 오늘부터 조례호수공원 등

순천시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활기찬 일상을 위해 21일부터 ‘2025년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을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은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과 광장 등 야외 공간에서 진행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전문 강사의 지도 아래 생활체조와 국학 기공 강습을 무료로 제공한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동천광장, 신대광장, 서면광장, 조례호수공원, 금당버드내공원 등 5개소에서 오후 6시부터 9시 사이에 운영된다.

이후 시민 수요와 참여 여건을 반영해 내달부터는 오전 시간대 프로그램도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조례호수공원에서는 내달부터 국학기공 아침 강습이 새롭게 시작되며, 향후 1개소 이상 추가 확대도 검토 중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하루를 여는 아침 운동부터,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 운동까지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해달맞이 생활체육교실이 시민 건강 증진과 이웃 간 소통의 장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순천만의 생활체육 문화를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이순신 스토리텔링 체험관광’ 여수시, 유적지 산책투어 등

여수시가 이순신 장군 스토리텔링 체험관광인 ‘이순신 장군 숨결 따라 낚달 산책투어’ 운영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순신 스토리텔링 체험관광은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를 따라 걷는 산책투어와 국악 버스킹과 난중일기 서책 만들기, 타루비 탁본, 장군복 입기, 신호연 날리기 등의 체험 활동을 비롯해 방문지별 주요 캐릭터를 획득하는 모바일 스탬프 투어가 함께 진행되는 온오프라인 역사문화 체험관광이다.

이순신광장을 출발해 진남관, 고소대, 오포대, 벽화마을로 이어지는 코스로, 10년 만에 재개관하는 국보 제304호 진남관이 포함돼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참가자들에게는 여수세계세탁박물관 마스코트인 다섬이 인형 키링이 제공되며, 문화관광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진행된다.

투어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25명 내외로 운영된다. 다만 오는 6월13일부터 15일까지는 ‘여수 K-한류 종합 행사’를 맞아 금·토·일 3일 연속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희망일 전날 오후 4시 이전에 ‘여수엔’ 어플이나 ‘OK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참가비는 성인기준 1만원, 학생과 어린이는 할인 및 면제 대상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 밤바다의 이미지에 역사관광을 더함으로써 호국 충절의 도시, 문화의 도시 여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한다”며 “자녀들과 함께 관광하며 자연스럽게 역사교육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